

국군편하 광복회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향군, 김원웅 광복회장 규탄 ... “창군원로 부정은 국군 창설 부정하는 것”



향군은 국군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편하한 김원웅 광복회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6월20일 광복회관 앞에서 참전용사, 향군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광복회장으로 취임한 김원웅은 “독립운동 평가는 8.15이전 행적만 따져야 한다”, “8.15 이후 행적을 묶어서 시비하는 것은 친일세력에 뿌리를 둔 반민족 행태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분리해야 한다” 라는 등 해괴한 논리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국군을 매도했다.

또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창군원로들을 친일이라 매도하고 국군

정통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통해 국군을 폄하했다.

이에 향군은 6월20일 광복회관 앞에서 참전용사 향군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원웅 광복회장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김진호 회장은 “독립운동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차등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수호한 공로를 인정받은 국가유공자를 독

립운동유공자와 차별화 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원웅 광복회장이 창군원로에 대한 친일 앞잡이 운운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1948년 대한민국을 창설하면서 남로당 일당을 일망타진하고 행정조직의 안정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각 분

야의 경륜 있는 인재들을 영입해 정부조직을 편성했고 광복군 출신의 이범석, 김학규,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신 장군, 중국군 출신의 김홍일, 최용덕 전 공군총장과 만주군 출신의 백선엽, 정일권 등 다양한 군 경력 소유자들이 국군창설에 참여해 이들이 6.25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향군 김형년 회장은 성

명을 통해 “아무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으며 창군원로를 부정하는 것은 국군 창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광복회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는 손무현 호국안보국장과 안찬희 홍보실장이 광복회에 전달했다.

광복회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두 번 죽이지 마라!!

지난 6월 7일 광복회장으로 취임한 김원웅은 ▲ 재향군인회를 보훈단체에 끼워 넣은 것은 독립유공자를 폄하, 수모를 주는 것이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분리해야 한다. ▲ 독립운동 평가는 8·15 이전 행적만 따져야 한다. 8·15이후 행적을 묶어서 시비하는 것은 친일세력에 뿌리를 둔 반민족 행태다. ▲ 대한민국 국군은 독립운동가의 범용이 아닌 일제 앞잡이의 조직이다.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의 일본군 경력을 들어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 토벌대인 '간도특설대'라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군의 뿌리를 흔드는 해괴한 꾀변을 늘어놓았다.

**해괴한 논리로 국군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광복회장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회 회장 (예) 육군대장 김진호, 13개 시·도 회장 일동 : 서울시회 회장 김윤환, 부산시회 회장 김윤호, 대구시회 회장 김인남, 인천시회 회장 김형년, 경기도회 회장 황신철, 강원도회 회장 권동용, 충북도회 회장 고종훈, 대전·충남도회 회장 박재은, 전북도회 회장 주대진, 광주·전남도회 회장 나중수, 경북도회 회장 양정석, 경남·울산시회 회장 손도수, 제주도회 회장 김달수, 22개 해외지회 회장 일동, 223개 시·군·구회 회장 일동, 3,221개 읍·면·동회 회장 일동, 66개 참전·친목단체장 일동

- 1 모든 행사시 국민에게 식순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다.**
‘순국선열’은 항일독립유공자이고 ‘호국영령’은 대한민국 탄생 이래 북한 공산정권을 비롯한 외부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유공자이다. 따라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똑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뿌리인데 왜 항일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차등화 해야 하는가?
* 자유민주주의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발상이다.
국립묘지의 14만 호국영령이 통곡한다.
- 2 독립운동평가를 8·15해방이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 의의는 무엇인가?**
해방 후 북한정권창출에 기여하고 6·25남침을 주도한 전범들도 독립유공자인가? 또, 독립운동가의 8·15 이후 행적을 평가하여 6·25전범들을 주적(主敵)으로 대응해 온 대한민국 국군은 친일, 반민족 세력인가?
*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8·15 이전으로만 평가 시 6·25 남침을 “민족해방 전쟁”이라고 표방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해(自害) 행위이다.
- 3 창군원로를 친일앞잡이로 매도하는 것은 국군을 모독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광복군, 중국군, 일본군의 경력을 망라한 유능한 인사들이 참여하여 국군을 창설하였고, 이 중 만주군 출신인 백선엽장군은 창군 멤버로서 북한의 6·25남침 시 다부동전투 등 국가가 풍전동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탁월한 지도력으로 전공을 세운 자타가 공인하는 전쟁영웅으로 평가받아왔다.
* 일부 창군원로의 일본군 경력을 들어 국군의 뿌리를 “일부 토벌대”로 매도하는 것은 국군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 4 향군은 건국 이래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한 예비역들의 호국안보단체이다.**
재향군인회는 1952년 창설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수호를 위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 온 국가유공단체다. 국가유공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독립유공단체인 광복회와 같은 반열에 있는 것이 왜 수모라고 주장하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가?
*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해 온 1천만 향군을 모독하는 것이다.

향군, 긴급 안보간담회 개최 ... 국론 결집·안보역량 강화 촉구

군 원로, 참전단체장 등 200여명 참석... 안보 상황 우려

향군은 6월20일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정진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희모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을 비롯한 군 원로와 참전 및 친목단체장, 향군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컨벤션에서 최근 안보현안 문제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론을 결집하여 안보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긴급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김원봉 서훈문제, 광복회장의 국군 폄하 발언, 중국 '화웨이' 문제로 인한 한미동맹의 훼손문제, 7군단장 보직해임 청원 문제 등 국가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논의 되었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4가지 발표 내용에 적극 공감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군을 매도하는 것은 반국가적 이적행위"라며 "향군을 비롯한 안보단체들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관장교연합회 김부욱 해병부회장은 "김원봉의 백선엽 장군 발언은 명예훼손죄, 모독죄도 가능하다"며 "법적대응으로 검토하라"고 의견을 밝혔다.

양영모 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은 "오늘 발표한 4가지 의제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전 안보단체가 공유하여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향군은 이날 간담회의 4가지 주제 중 첫 주제인 김원봉 서훈과 관련, 아무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긴급간담회 개최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김진영 회장



그러나 김원봉 광복회장은 계속 서훈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6월10일 청와대가 현행법상 서훈은 불가능하다고 밝히자 중단하기로 했지만 "독립운동가에 대한 평가는 8·15 해방 이전 행적만 따져야 하며 8·15이후 행적을 묶어 시비하는 것은 친일 세력에 뿌리를 둔 반민족 행태"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원봉은 독립운동기간 좌파진영을 주도해온 사람으로 해방 후 북한 정권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한 독립동맹의 주석인 김두봉과 6·25남침 시 북한군 2군단장 김무정 그리고 북한 고위직을 역임한 최창익, 허정숙 등 북한의 정권수립에 크게 기여하고 대남 적화통일을 위해 김일성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민족반역자들과 같이 독립운동에서 6·25남침까지 함께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8·15 해방이전의 독립운동 기록만으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서훈을 해야 한다면 이들 모두를 독립유공자 서훈해야 하나?", "아니면 왜 유독 김원봉의 서훈을 주장하는가?", "또 한발 더 나아가서 소련군 지휘를 받던 88독립여단 출신의 김일성, 최용건, 김책도 서훈을 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원봉의 독립운동 평가 주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김일성의 6·25남침을 민족해방전쟁으로 둔갑시키려는 북한의 선전, 선동 논리에 영합하는 극히 위험한 역사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인 김원봉 광복회장의 국군 폄하 발언에 대해서는 창군 원로를 부정하는 것은 국군창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광복회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향군은 "8·15 해방 후의 남한은 좌우이념 정치논리에 휩싸여 혼돈의 정국이었던 반면 북한은 소련이 앞세운 김일성이 1946년 2월 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공산정권을 세웠다"고 설명한 뒤 탁월한 반공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탄생한 대

한민국은 남로당 세력을 일망타진하고 행정조직의 안정화를 꾀하는 일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였기에 각 분야의 경력 있는 인재들을 영입, 정부조직을 편성했고 광복군 출신의 이범석, 김학규 중국군 출신의 김홍일과 만주군 출신의 백선엽, 정일권 등 다양한 군 경력 소유자들이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창군 2년 만에 발생한 김일성의 적화통일야욕을 분쇄하는데 목숨을 걸고 싸워 한반도 공산화를 막아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주역들"이라며 "전차 한 대 없이 소련제 T-34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을 격퇴시킨 이들 창군 원로들에 대해 우리 국민은 경의를 표하는데 유독 광복회장이 이를 폄하하는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광복회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을 했다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북한공산체제로부터 대한민국 사수를 위한 체제수호 운동을 해 온 유공단체"라며 "국가체제 수호를 위한 유공자 평가에서 광복회와 재향군인회를 차등화 하려는 김원봉의 주장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광복회라는 보훈단체를 앞세워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군의 명예를 훼손시키며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광복회장 김원봉의 망언을 엄중히 추궁해 나갈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세 번째 주제인 중국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는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며 경제는 국익의 문제라며 한미동맹이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최근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열흘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반 화웨이 제재 동참'을 우리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며 "미국은 5G 네트워크에서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며 단기간 비용절감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를 선택하면 향후 큰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

고 화웨이 장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화웨이 문제는 과거 마늘 분쟁이나 사드문제와 달리 화웨이 통신장비의 보안 문제로 한·미 군사 당국 간의 정보공유 제한 등 국가안보문제에 치명적인 갈등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감안, 한·미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은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이나 미국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피로 맺은 동맹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더 밀려서도 안 되며 이번에 밀리면 영원히 지난 5000년 역사처럼 중국에 굴욕 당할 수 있다"며 "향군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 할 수 있도록 이에 맞서 중국대사관 앞 반중국 시위를 포함한 대국민 안보활동에 앞장서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7군단장 보직해임 청원문제에 대해서는 "강한교육 훈련은 군인의 본분이며 각급 지휘관의 지휘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군의 존재가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군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전술전기를 숙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한교육 훈련은 군인의 본분이며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휘관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지휘관의 책무를 예를 들며 "모든 지휘관의 지휘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휘관이 외부의 간섭을 받거나 흔들리면 강한군대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군이 국민교육의 도장으로서 정의를 건강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한반도 평화정착 계기 되길

향군, 환영행사 ... “북한 비핵화 가시적 성과 기대”

향군은 6월29일과 30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각각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다.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하는 동선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향군은 600여명의 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향군조끼와 모자를 쓰고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한미 동맹 강화’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다.

이날 환영대회에서 김진호 향군회장은 “미국은 1950년 김일성이 불법 남침을 자행하자 즉각 가장 많은 전투력을 투입하여 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했으며 휴전이후에도 한국과 함께 한미연합군이라는 굳건한 동맹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강력 대처해온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혈맹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방한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양국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인 29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평택 캠프 험프리스 후문 앞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김진호 회장은 황신철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6.25전쟁 당시 미국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저지했고 휴전이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미동맹으로 지난 70년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처하여 왔다”고 강조한 뒤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한·



미공조체제가 더욱 튼튼해지기를 염원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회고하며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강조했던 지난 했다.

김진호 회장, 중앙보훈병원 방문

전상용사 위문, 국가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위훈 감사



김진호 회장이 6월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소재한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가료중인 전상용사들을 위문하고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회장은 월남전 참전자들이 머물고 있는 병실을 방문해

환자들의 상태와 치료 상황을 둘러보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한미동맹은 월남 참전자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라며 호국용사들의 공헌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위문금을 전달했다.

향군, 제64회 현충일 호국영령 추모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향군 임직원들은 6월5일 제64회 현충일을 앞두고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 조국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빌었다.

인피니개발산업 박인수 회장 ‘추모의 벽’ 성금 3천만원

6.25 참전용사 희생 기려 ... 가장 많은 금액 기탁

인피니개발산업 박인수 회장이 위싱턴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 세워질 ‘추모의 벽’ 건립 성금 3천 만원을 기탁했다. 6월28일 박회장은 향군회관에서 김진호 향군 회장에 성금을 전달하고 6. 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의 벽’ 건립사업에 써달라고 말했다. 이 금액은 향군이 모금운동을 전개해 온 기간 중 제일 많은 금액이다.



인피니개발산업 박인수 회장이 ‘추모의 벽’ 건립 성금 3천 만원을 기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론 결집해 국가안보역량 강화할 때”

향군, 최근 안보상황과 관련 입장 발표

향군은 6월3일 ‘최근 안보상황과 관련한 향군의 입장’이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위협에 일사분란하게 대응해야 할 대통령의 군 통수체계가 도전 받으며 대한민국의 최후 보루인 국군의 위상이 심각하게 손상되는데 대해 국가안보 제2보루인 향군이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 목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군은 성명에서 “최근 일부 지식인들의 역사왜곡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일부 친북단체들이 김

정은을 찬양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군의 위상과 군 통수체계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군과 국군통수체계를 위해하는 것은 국론분열이고 적전분열이므로 국가안보 차원의 대응적인 관점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향군,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큰 성과

전사자 집단 매장지 제보 ... DNA시료 채취도 줄이어

향군이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6.25전사자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향군은 지난 1월21일 "6.25전사자 유해 발굴 지원" 추진 계획을 전국 향군 조직에 하달한 바 있으며 향군 본연의 안보활동과도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판단, 국방부 유해 발굴 사업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체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강원도 양구군 향군은 정남학 6.25 참전유공자회 양구군지회장을 통해 6.25 전사자(인민군 추정)유해 집단 매장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인근 지역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작업을 하고 있던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염정호 상사에게 통보했다.

정남학 지회장은 1951년 7월경, 육군7사단 공병대대 소속 이등중사로 참전 중, 양구읍 고대리길 삼거리 근처 북한군이 설치한 임시가교가 폭이 좁아 아군의 장비 이

동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제거하고 큰 가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수의 인민군 유해가 나왔으며 이 유해들을 현재 양구읍 고대리 소재 '한반도 섬' 입구 우측 15미터 지점에 매장했다고 증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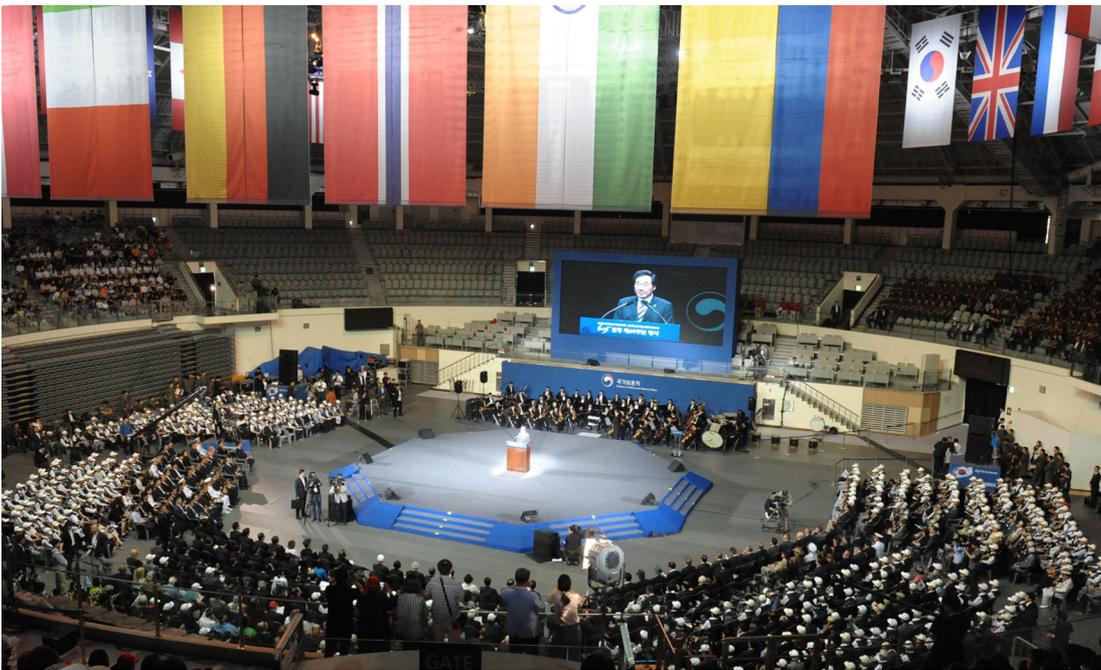
구체적인 증언내용으로 제보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 6월25일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현장검증이 예정되어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군은 유가족 DNA시료 채취에도 적극 동참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다.

6.25전사자 명부를 들고 직접 유가족들을 찾아 나서며 신원 확인의 기초가 되는 주민들의 증언 확보와 DNA 채취 절차 안내 등을 통해 10건(완료 7건, 진행 3건)의 유가족 DNA를 채취하는 성과를 올렸다. 복잡한 채취 과정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 동안 좋은 성과를 올린 셈이다.

향군은 앞으로도 6.25전쟁 당시 전사하여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있는 13만3천여 명의 호국용사 유해를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6.25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69주년 6·25 ... 참전용사 위훈 기려

6·25전쟁 제69주년을 맞아 6월25일 오전 10시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용기,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국군 및 유엔군 6·25참전유공자 및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및 군 장병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제69주년 행사가 열렸다.

육군, 호국보훈 행사 ... 참전용사 희생과 헌신에 감사

영동초에 참모총장 명의 6·25참전용사 모교 명패 증정

육군은 6월1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용사의 값진 희생을 예우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보훈 의식 확산을 위해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6·25 참전용사를 다수 배출한 영동초등학교에서 명패 증정식과 무공훈장 수여식을 갖고 6·25 참전용사인 박원용(90) 용의 자택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육군은 6·25전쟁 당시 현역 군인으로 참전했던 영동초등학교 출신 참전용사 27명의 존함이 새겨진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명패를 학교장에게 증정하고 생존해 있는 영동초등학교 출신 참전용사 6명과 유족 2명에게 꽃다발과 함께 추소명패를 증정해 위국헌신 군인

본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선배 전우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9사단 고 김광수 소위 등 8명의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이어 6·25전쟁에 참전했던 박원용 용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나라사랑 보금자리' 제337호 준공 및 현판식을 가졌다. 민·관·군이 협력하여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중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을 선정하여 집을 신축 및 보수해 드리는 국민적 사업인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36가구를 지원했다.

박원용 용은 1952년 육군에 입대



해 7사단 5연대 소속으로 강원도 양구 인제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후 1956년에 일등중사로 군복무를 마쳤으며, 199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서육 육군참모총장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69년 전 위기에 처한 조국을 수호해 낸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며 "육군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선배전우들의 열을 계승해 강력한 힘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작전사 부산기지전대, 지역주민에 봉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전대 장병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따뜻한 선행의 손길을 내밀었다.

먼저 부산기지전대 소속 의무대, 화생방지원대, 보급정비대 장병들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인근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등을 찾아 '영유아 치아검사', '장애인 목욕 봉사', '주거시설 개선 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의무대 장병들은 5월21일 작전사령부가 운영하는 바다별

어린이집 영유아의 치아 검사를 실시했고 22일에는 부산 남구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의료상담과 진료를 실시했다. 이어 화생방지원대 장병들은 23일 부산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협조해 대중목욕탕에서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의 목욕을 도왔다.

보급정비대 장병들도 30일 부산 남구 새빛기독교보육원을 찾아 전기·배수시설과 에어컨을 정비하는 등 전문 기술을 살려 주거시설을 개선했다.

공군 18전비, 농촌 일손 돕기 봉사

공군18전투비행단(18전비)은 5월18일 산불 피해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대 인근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18전비 항공정비전대 장병들은 모판 이동 작업을 비롯해 피해 건축물 정리 및 내·외부 청소를 하며 구슬땀을 흘리며 "산불 피해로 걱정이 큰 지

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 드리고 싶었다"며 "쑥쑥 자라는 벼처럼 피해 복구도 빠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활동이 펼쳐진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일대는 지난 4월 강원 지역 산불로 큰 피해를 봤으며 현재 인력과 장비 부족을 겪고 있다.

해병 2사단 백호연대, 김포 대명항 정화활동

해병대 2사단 백호연대가 5월31일 김포시 축수산과가 주최한 '연안정화 활동의 날' 행사에 동참해 김포 대명항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장병들은 경기도청·김포시청·시설관리공단·경기북부수협·어촌계·상가번영회 관계자와 함께 대명항 인근 주요 관광지 및 부두에 방치된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역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해병대의 임무"라며 "앞으로도 작전대비태



세 완비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병대가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2사단은 2017년부터 김포시·강화군과 연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자연정화의 날'로 정하고 지역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중앙고속-희망브리지

사회공헌 업무협약 및 광고제막식 가져



중앙고속(대표이사 노연웅)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6월5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중앙고속 본사에서 재해와 재난 발생 시 성금 모금 활성화를 비롯한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희망브리지 버스광고 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평소 공익을 추구하는 양 기관의 가치와 역량을 바탕으로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과 구호활동, 기후 난민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한 범국가적인 긴급 모금에 적극 협력하고, 해외 기후 난민을 돕기 위한 참

여형 모금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활발하게 전개할 방침이다.

중앙고속은 1971년 창립된 이래 지난해 안전부문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경영 서비스 평가부문에서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대표적인 국내 고속버스 회사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7월에 발생한 대규모 수해를 계기로 각종 재해 발생 시 의연금품의 통합적인 관리와 배분을 위해 발족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현재는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국내 최고의 모금 및 구호기관이자 협력 네트워크 허브를 완벽하게 구축한 세계적인 수준의 단체다.

특별기고

지금은 5G 초연결 시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1983년도 미국의 통신회사인 아메리텔이 아날로그 방식의 무선통신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시작됐다. 지난 35년간 이동통신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전 기술'과 '새 기술'을 구분하기 위해 '세대(Gener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G'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G'는 세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5G'는 무엇이고 그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첫째 '5G'는 무엇인가? 5G 기술은 흔히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지난 35년간 이동통신 기술역사에서 5번째로 진일보한 기술이다. 새로운 이동통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 우선 기술표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전 세계의 통신업체들이 합의를 하는 기술 규격이다. 기술 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알카텔-루슨트, 노키아, 화웨이 등의 주요 통신장비 업체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특허가 기술 표준에 반영되면 라이선스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장비 상용화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규격을 정하는 국제단체 3GPP이다. 3GPP는 2017년 12월, '5G NSA(Non Stand-Alone)' 기술표준 승인했으며, 곧 이어서 2018년 6월, '5G SA(Stand-Alone)'를 기술표준으로 승인했다. 이러한 기술이 마무리 된 다음의 올해는 5G기술 상용화 첫 해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초보 단계인 '5G NSA' 기술이다.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삼성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아직은 기지국이 적기 때문에 네트워크 커버리지 부족 때문에 통합 품질 문제 대해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국이 5G 상용화 서비스의 최초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면 앞으로 등장하게 될 5G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4세대 기술 'LTE(Long-Term Evolution)', 아마 제품 설명을 보실 때 LTE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2009년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최초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2011년도 부터 이동통신 3사가 LTE서비스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시작했다.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 스마트폰의 등장과 맞물리면서 진정한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는데 4세대 이동통신에 비해서 더 진보한 기술은 'LTE(Wideband LTE)'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진보

한 것은 LTE-A(LTE-Advanced)이며, 또 한 단계 진보한 것이 LTE-A Pro이다. 여기서 4세대 이동통신이 발전하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이동통신이 발전하다는 것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더욱 빨라 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단계나 이론 상으로는 최대 1.2Gbps(Giga bit per second)까지 낼 수 있는데, 1초에 12억 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전송 속도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2GB 영화 한편을 13초 만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속도가 바로 1.2Gbps이다. 2019년 3월 9일 날 국내 한 이동통신 회사가 1.2Gbps LTE 서비스를 개시하고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했다. 이 기술이 어느정도 나면 2011년 4세대 한국의 이동통신 3사가 제공될 당시에 비해 '16배 이상' 빨라진 속도로서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엄청난 발전을 한 것이다.

셋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기술이 있다. 초보급인 5G NSA, 고급인 5G SA인데 현재 사용하는 기술은 5G NSA이나 5G가 상용화 되어도 기지국이 부족으로 통화 품질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기지국이 건설되어 있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 LTE 네트워크를 같이 활용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5G NSA는 '4세대 이동통신인 LTE 네트워크와 + 5G 기술' 융합해서 사용하는 걸 의미하며, 시간이 지나서 등장하게 될 기술이 바로 5G SA(Stand-Alone)이다. 오로지 5G 네트워크만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진정한 5G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금은 초보지만 현재 기술력을 봤을때 5G SA까지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싶다.

넷째 왜 5G 이동통신 기술인가?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영상을 보는 것도 문제없고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는거나 게임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왜 5G에 대해 난리법석인가 하지만 5G이동통신은 이전세대와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 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5G는 과학소설에서나 가능하였을 법한 즉, 상상 속에서도 가능한 새로운 시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타지 않는 자동주행 차는 4G 이동통신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 즉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 5G 이동통신 기술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5G 이동통신 기술을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특히 '모빌리티(Mobility)' 자동차 분야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다섯째 5G 기술의 3가지 강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면 5G 기술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초고속이란 무엇인가? 4세대 이동통신 LTE에 비해, 최대 속도 20배 체감 속도 최소 10배 이상 빠르기에 HD급 영화(2GB)를 다운로드 받을 때 LTE는 약 16초가 걸리지만 5G는 0.8초가 걸린다. 기술적으로 보면 '최대 20Gbps(20Giga bite per second), 실생활 체감 속도는 최소 100Mbps(Mega bit per second)'라고 볼 수 있다.

초저지연이란 무엇인가? '초저지연(Low-Latency)는 지연시간'을 말한다. 즉, 반응속도를 말하며 4G에 비해서 반응속도가 최대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통신지연 차이에 따른 자율 주행차의 제동거리를 예로 들면 4G 지연시간은 0.03~0.05(30~50밀리초)이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거리는 80~135cm이라는 것으로 즉, 반응속도가 느려 1.35m까지 자동차가 밀릴 수 있다는 것이고, 1.35m의 제동거리 동안 사고 발생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5G 기술은 지연시간이 0.01초(10밀리초)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거리는 2.7cm로 자동주행 자동차가 운전시 "사고다"라는 감지를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2.7cm만 가고 딱 멈춘다는 소리이다. 반면 4G 이동통신은 80~135cm를 밀리고 멈추는 것으로 5G 이동통신 기술을 쓰면 사고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초연결'이란 무엇인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 5G는 무한정에 가까운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다. 이동통신 기술은 3단계 발전을 이뤄왔다.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음성 통화의 시대, 두 번째는 기계와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모바일 인터넷 시대이고, 세 번째 지금은 기계와 기계의 커뮤니케이션 시대이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과 기계는 사람의 조작으로 명령으로 수동적으로 작동 했다면 지금은 기계와 기계가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한다. 미국의 큰 소프트웨어 회사 IBM 최고 경영자 버지니아 로메티는 "다음에 다가올 가장 큰 변화(The next big thing)는 사물 인터넷에서 출발 할 것"이라고 했다. '초연결의 시대' 현재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는 약 80억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2021년까지 460억개로 늘어 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시대는 '초연결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상배
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성우회, 태영호·신각수 초청 조찬강연회



태영호 "북 핵은 장기적인 문제" 신각수 "한국 전략환경 '세계제로'

성우회는 6월13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신각수 전 주일대사를 초청, 조찬강연회를 가졌다.

태영호 공사는 이날 "단기간 내에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을 제거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실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김정은의 핵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것과 미국은

북을 먼저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중국은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등 3가지를 이해하면 현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세토포럼 이사장)는 "현재 전환기 한국의 전략 환경은 한마디로 '세계 제로' 상태"라며 "북한은 1,000발의 단·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실전배치한 사실상 핵무장 국가이고 미·중은 전략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익우선 정책으로 동맹관계의 약화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반이 침하되고 있어 어려운 외교안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울산 향군 광 방문, 6.25 참전용사 위로

전적지 탐방, 참전용사 위로만찬 가져 ... 안보의식 고취

경남 울산 향군(회장 손도수)이 6월7일부터 11일까지 미국령 광을 방문, 6.25 참전국 교류 사업을 실시했다.

광은 동남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전을 위해 미 군사기지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교포들도 8,000여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특히 6.25참전용사들도 현재 일부 생존해 있다.

경남 울산 향군은 방문 기간 6.25참전

기념 헌화 및 참배, 태평양 전쟁 국립역사공원(아산비치)와 전쟁박물관 방문했다. 또 학도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이복례 옹과 김광래 옹, 그리고 박재문 광 한인회장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손도수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며 애국정신을 가다듬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야겠다”고 말했다.



◆위기 극복의 첨병 / 부산 영도구 향군

보훈회관으로 사무실 이전, 향군회관 임대수익 늘어

다양한 봉사활동과 적극적인 안보활동으로 향군 정체성 확립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태종대’ 초입에 위치한 부산 영도구 향군회관은 관광 상권의 중심에 위치해 늘 임대수익이 이어졌고 영도구 향군의 원활한 운영에 큰 자산이 되어 왔다.

영도구 향군은 이를 토대로 회원 및 주민들을 위한 안보계도 활동, 여성회 및 청년단을 통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향군 정체성을 확립해 구민들로부터 칭송받는 모범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6.25참전용사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 등 어르신들을 꾸준히 지원하는 보훈활동에도 정성을 쏟아 지역 내 참전보훈단체들과 유대강화에도 힘써왔다. 이처럼 영도구 향군은 지역에서 인정받는 안보단체로 그 위상을 돈독히 해 오고 있다.

임대수요 풍부하지만 회관은 노후 보훈회관 입주 추진

영도구 향군회관은 부산도심 뿐만 아니라 구청과도 거리가 있는 편이다.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는 위치에 있다. 또한 건립된 지 오래되어 건물 노후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영도구 향군은 수년간 회관 리모델링 및 이전까지 모든 가능한 방안을 고민 했었다.

그 즈음 영도구에서는 지역 내 보훈단체들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했다. 영도구 향군은 보훈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향군회관의 임대공간을 늘려 재정수익을 늘이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보훈단체들은 향군이 회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훈회관 입주를 반대했다. 생각지도 못한 사안이었다.

이에 영도구 향군은 보훈단체 입주에 대한 당위성을 영도구에 적극 알리고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적극 나섰다. 상당액의 기부금 확보로 보훈단체들의 반대를 설득해 나갔다.

항상 우호세력으로 향군활동에 적극 협조해 오던 보훈단체들이었기에 영도구 향군의 이 같은 노력에 마음을 열었다.

영도구 향군은 2015년 보훈회관 준공과 함께 도심과 가까운 보훈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그



리고 향군회관 내 사무실은 임대로 전환 재정수익을 늘였다.

이 같은 성과를 얻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인 영도구 향군 임직원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보훈단체 유대 강화하며 내실 다져 향군회관 활용도 높일 방안도 검토

영도구 향군은 이제 이웃 보훈단체들과 더욱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자칫 서운할 법도 한데 오히려 보훈단체에 더욱 무한한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안정적 회 운영과 함께 재정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정기적으로 이들 단체 회원들에게 보은을 베풀려고 한다. 이것이 소박하고 따뜻한 영도구 향군의 작은 소망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영도구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향군회관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리더십과 지도력을 갖춘 김상겸회장을 필두로 끈끈한 동지애를 바탕으로 화합하고 있는 영도구 향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호국영령 추모, 후계세대 애국정신 고양

제주도 향군, ‘나라사랑 체험 한마당’ 개최



제주도 향군(회장 김달수)은 6월8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조영수 해병대 제9여단장, 황의균 제주도 보훈청장, 회원 및 어린이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6회 나라사랑 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어린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기념식, 해병9여단 군

악대의 공연과 나라사랑 사생대회, 6.25사진 전시, 군장비 전시 외에 줄넘기 시범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멋쟁이 일등병’ 포토 존, 나라사랑 티셔츠 만들기, 원예아트, 염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펼쳐졌다.

특히 해병9여단에서 제공한 K1, K7 등 각종 화기류와 헌병대용 전술차량 등을 전시하고 군 장비 착용하는 등 군 장비 체험기회도 진행됐다.

경기도 향군 여성회, 상해 독립유적지 탐방



독립투사 발자취 돌아보며 안보의지 다져

경기도 향군 여성회(회장 이숙중)는 6월11일부터 14일까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공원을 비롯해 항주, 가흥 등 김구선생 피난지 등을 돌아보며 어려운 여건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각급회 소식

이웃에 봉사하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 향군 각급회 활동

(5월21일 ~ 6월20일)

서울시 향군

영등포구회 : 6월5일 신길역 뒤 위령탑에서 반공순국용사 위령제 개최.

부산시 향군



부산시회 : 6월8일 53사단 사령부에서 학생 1000여 명이 참석,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 문예대회 개최.



영도구회 : 6월6일 태종대 공원 내 의료지원단 비, 영도유격부대 추모비를 참배하고 환경정화활동 실시.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6월1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향군 및 호국단체연합회 회원 등과 함께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 위문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

동구회 : 5월31일 전북 군산시 향군을 초청, 영호남 교류행사를 갖고 다부동전적기념관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을 둘러보며 안보의식 고취. 6월12일 동구 금강동 매실농장에서 매실 따기 봉사활동.



서구회 : 5월31일 서구제일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함누리 희망 나눔 축제에 참가하여 저소득 홀로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을 돕

기 위한 바자회 개최.

달서구회 : 6월1일 전남 강진군 향군을 초청, 대한수목원 어울림한마당에서 영·호남 친선교류행사를 갖고 기념행사 후 함께 왜관 다부동 전적지를 둘러보고 화합 다져.

수성구회 : 6월6일 현충일 범어공원에 위치한 6.25 한국전쟁 시 국제연합 한국군 지원단 인도대표였던 나야 대령 참전기념비 참배. 6월7일 피꼬리극장에서 열린 봉사자 한마음대회에서 봉사단체 특별상 수상.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6월14일, 15일 6.25 최대 격전지인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에 조성된 낙동강 전적지와 경북 영덕군에 있는 장사 상륙작전 전적지 등 특수지역격전지 순례행사 실시.

계양구회 : 5월28일 을지 태극연습 기간 중 인천 서운 체육공원에서 훈련 참관.

강화군회 : 6월9일 파주시 임진각으로 격전지순례행사 실시.

남동구회 : 간석4동 주민 센터와 함께 관내 환경취약지역 청소 및 환경정비.

옹진군회 : 5월24일 장봉도 해변 가에서 향군정화활동 실시.

부평구회 : 6월13일 청소년 대안학교 늘봄학교 학생들을 초청, 강화 평화전망대와 전쟁박물관 탐방.

경기도 향군

수원시회 : 6월12일 수원시 호국보훈회관을 찾아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고엽제 전우회에 위문품(라면 200상자) 전달. 6월4일, 5일 용대리, 통일전망대 등지에서 '평화안보연수회'를 갖고 안보강연과 견학을 통해 안보의식 고취 및 화합 도모.



의정부시회 : 5월21일부터 23일까지 울릉도 및 독도 안보답사 행사를 갖고 안보의식 고취.

과천시회 : 5월30일, 31일 최서북단 백령도를 방문,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등 안보현장 견학.

시흥시회 : 5월22일 탄금회 증원탑 등 충

주지역 역사 안보 전적지를 둘러보는 답사행사와 환경정화활동 등 호국정신 선양활동 펼쳐. 6월8일 청년단은 시흥중학교 학생 30여 명을 초청, 해군 2함대 서해수호관 및 화성제암리기념관을 둘러보는 안보견학 실시.

부천시회 : 5월25일, 6월12일 충남 예산 및 서산 해미읍성 일대 안보전적지 탐방.



성남시회 : 청년단은 6월9일 황송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실시. 여성회는 6월5일 제1해상전투단 방문 및 삼척, 묵호 일대 안보문화탐방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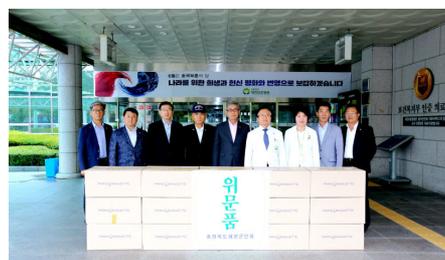
포천시회 : 5월29일 화현초등학생 학생 초청, 제1기갑여단 예하 5335부대에서 병영 체험 및 안보교육.

강원도 향군



홍천군회 : 5월 29일 홍천군 일대에서 열리는 제54차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앞두고 환경정화활동 실시.

충청북도 향군



충북도회 : 6월14일 대전 보훈병원과 청주 효성병원을 방문, 임원중인 전상용사 위문.

음성군회 :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는 6월13일 영빈웨딩컨벤션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손영국 안보교수를 초청, 안보

강연회 개최.



청주시회 : 5월30일 청원초등학교 학생, 6월5일 서현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도회 허태응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내일, 나의사랑 나의조국'을 주제로 나라사랑 평화통일 교육 실시. 5월31일, 6월1일 호국안보의 상징 백령도를 찾아 해병대OP 및 111항공대대 견학,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 등을 통해 안보의지 고취. 6월14일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246명을 초청, 평택 제2함대사령부, 아산 현충사 등 안보현장 견학.

대전 충남 향군



대전 충남도회 : 5월28일 후계세대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대전 5개구에 거주하는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명과 함께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과 남북출입사무소, 제3땅굴, 도라 전망대 등 안보현장 견학 행사 실시.

중구회 : 여성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둔 5월22일 지역 보훈회관에서 유공자 어르신들을 초청, 효 잔치 행사 개최. 6월5일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지구전투 전적비 2개소에 대해 잡초제거, 쓰레기수거 등 정화활동 및 산화한 818명의 미군장병에 대한 추모행사가 거.

서구회 : 6월4일 정구왕 향군 안보교수를 초청, "우리의 통일과 안보"를 주제로 임직원 안보교육 실시.

유성구회 : 6월6일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64회 현충일 기념행사에서 음료 및 태극기 나눠주기 봉사활동 실시.

동구회 : 6월15일 서산 해미읍성 역사문화탐방 실시, 안보의식 고취.

대덕구회 : 6월4일 중리동 벼룩시장에서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

공주시회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월2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당진시회 : 여성회는 6월6일 나라사랑공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음료 봉사활동 실시.



천안시회 : 6월7일 제9보병사단과 함께 성환초등학교에서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 고 오규봉 하사 추모행사 개최. 5월30일 성환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제9사단 전차대대를 방문, 병영체험 행사 가져

전라북도 향군



전주시회 : 6월4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실시된 제 14회 전물군경호국영령 합동 추모제 참석. 6월20일 중화산동 소재 이중본에서 지역 6.25참전용사들을 초청, 호국영웅 위로연.

정읍시회 : 6월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태인중학교 2~3학년들을 대상으로 전종석 향군 안보교수를 초청, 안보교육 실시. 6월5일 학산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황기석 향군 안보교수를 초청, 안보교육 실시. 6월4일 전북과학대학교에서 군 임명자를 대상으로 병무행정 안내, 군 복무자세 등 심리안정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



군산시회 : 6월4일 군산대대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종석 향군 안보교수를 초청, '자랑스런 대한민국 평화로 미래로'를 주제로 안보강연. 여성회는 현충일을 앞둔 6월3일 군경합동묘지를 찾아 환경정화 봉사활동 펼쳐.

부안군회 : 5월30일 이순신 연대를 방문하여 훈련 중인 장병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 여성회는 6월1일 경찰참전 충훈탑 참배 및 환경정화활동 실시.

김제시회 : 6월6일 현충일을 맞아 백학동 군경묘지, 성산공원 충혼비를 참배하고 금산사 입구에 위치한 이 고장 출신 호국영웅인 백마고지 육탄 3용사 고 안영권 하사의 전공기념비를 찾아 헌화·참배.

무주군회 : 6월4일 보훈의 달을 맞아 무주읍 한풍루 충훈탑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 전개.

진안군회 : 6월4일 진안대대 장병들과 합동으로 충훈탑과 6.25전쟁 영웅 기념탑 주변 정화활동 실시.

남원시회 : 여성회는 6월8일 인월제 행사에 참석하여 손맛사지 및 짜장 봉사 실시. 5월31일 남원 오거리에서 금연캠페인 실시.

임실군회 : 6월6일 임실호국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행사에서 생수 봉사활동.

고창군회 : 6월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충훈탑 주변 자연정화활동 실시.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5월26일~29일까지 민족의 정기가 서린 백두산을 탐방, 해외 안보 현장견학행사 실시.

광주 남구회 : 5월31일 양유술 안보부장을 초청, '통일은 기회다'를 주제로 회원 안보강좌 개최.

광주 북구회 : 5월23일 계룡대, 독립기념관 등 안보현장견학행사 실시.

광주 광산구회 : 5월24일 향군을 사랑하는 모임 월례회를 갖고 박시종 전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초청하여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안보강연.

보성군회 : 5월31일 문덕면, 검백면 소재 선암비 2곳을 찾아 정화활동 및 참배.



영암군회 : 5월29일 영암군청 상황실을 방문, 2019년 을지태극훈련에 노고가 많은 군 장병 위문.

화순군회 : 6월11일 양유술 안보부장을 초청,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경상북도 향군



경북도회 : 6월10일~14일까지 6.25당시 물자지원국 베트남 및 캄보디아 안보현장 견학행사 가져.

영주시회 : 여성회는 5월31일 충훈탑에서 주변 정화활동 실시. 6월2일 최고일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 향군회법 개정안 폐지를 위한 간담회 가져.

포항시회 : 6월6일 포항시 충훈탑 광장에서 호국 보훈 사진 전시회 개최.

청송군회 : 6월6일 충훈탑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점심식사 봉사. 6월5일 향군사무실에서 지역 531부대 3대대에 위문품 TV 전달.

경주시회 : 6월14일 월드웨딩뷰페에서 국가유공자 초청 위로연 및 안보포럼 개최. 6월1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하회마을 등 안동지역 역사유적지 탐방, 안보의식 고취.

안동시회 : 5월28, 29일 제주도 일대 안

보전적지를 답사하고 안보의식 고취 및 친목 도모.

영천시회 : 여성회는 5월28일 영천호국원을 찾아 참배 후 묘비정화 활동 실시.

경산시회 : 6월15일 자인 계정 숲에서 향군 안보결의 및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회원 간의 단합 도모.



칠곡군회 : 5월24일 금요일 관내 우수고등학교 80여명을 초청, 진해 군항문화 및 해군사관학교 탐방.



문경시회 : 6월14일 점촌중학교 학생들을 초청, 청소년 나라사랑 일일 병영체험행사 실시.

경남 울산 향군



진주시회 : 6월13일 진주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전 국립현충원,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안보현장 견학행사. 5월25일, 26일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일원에서 안보현장 견학. 5월28일 한일병원 장례식장과 회원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지정협약서를 체결, 사용료 30% 감면 혜택.

남해군회 : 여성회는 6월7일에서 9일까지 열린 '보물섬 마늘축제 및 한우잔치' 행사 기간 중 음료봉사.

하동군회 : 6월7일 중앙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기완 교수를 초청, '전쟁을 통해 본 국가안보와 평화의 가치'를 주제로 안보강연회 개최.

양산시회 : 6월12일 현성의료재단 더이로운 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 복지 증진 도모. 여성회는 6월6일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서 근조리본 달기, 부채 및 기념품 전달 등 봉사활동전개. 6월4일 춘추공원 현충탑 기념공원을 찾아 환경 정화활동 실시.

통영시회 : 여성회는 5월31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원문 공원 내 충훈탑 등 현충시설 정화활동.

밀양시회 : 6월5일 제5870부대 2대대를 방문,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

의령군회 : 5월24일 청년단은 통일동산

6.25참전유공자비 환경정화. 6월1일 호국공원 충훈탑 주변 환경 정화활동 실시.

거제시회 : 여성회는 6월6일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음료 봉사.

사천시회 : 6월13일 현대재활요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회원 복지 증진.



김해시회 : 6월8일, 9일 다부동전적지 및 팽택 2함대를 방문,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얼 기려.

창녕군회 : 6월13일 신장여중 학생들을 초청, 대전 국립현충원 견학 및 참배.

고성군회 : 6월12일~14일 백령도 안보현장 견학행사를 갖고 임직원 안보의식 고양.

창원 마산 합포 회원구회 : 5월23일 마산 회원구청을 방문, 최옥환 회원구청장님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현안 논의.

창원 의창·성산구회 : 청년단은 6월10일 봉림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망가진 울산무상수리 봉사 활동.



울산 동구회 : 5월28일 화령전승기념관 등 상주지역 안보전적지를 둘러보고 안보의식 고취.

울산 남구회 : 여성회는 6월7일부터 9일까지 고래축제 행사장에서 먹거리부스 운영 봉사.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5월31일 해병 9여단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 6월3일 제주시 늘봄에서 보훈안보 단체장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제6회 나라사랑 체험마당 운영 등 현안 사항 논의.

서귀포시회 : 6월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충훈묘지를 찾아 묘비와 충훈탑 정화활동 및 충훈묘지 주변 꽃길조성 등 환경정비활동 벌여. 여성회는 6월6일 서귀포시 충훈묘지에서 거행된 제64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빵, 차, 각종음료 등을 제공하는 봉사 활동 전개.

서귀포시 예래동회 : 6월4일 관내 도로, 체육공원 등 풀베기 및 환경정비 활동 실시.

서귀포시 남원읍회 : 6월1일 충훈묘지 및 주변도로 예초작업 등 환경정비 활동 실시.

친목단체 활동

국립현충원 참배



갑종장교전우회(회장 김영갑)는 6월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참배행사를 가졌다.

무후선열묘역 추모제



광복군동지회(회장 이영수)는 5월30일 수유리 광복군 무후선열묘역에서 추모제를 거행했다.

제58주년 ROTC의 날 행사



ROTC중앙회(회장 진철훈)는 6월1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제58주년 ROTC의 날 행사를 가졌다.

안보현장 견학



대령연합회(회장 유승일)는 6월18일 평택2함대 견학 및 서산해미산성 전적지 답사 등 안보현장 견학행사를 실시했다.

전몰장병 합동 추모식



육군본부지휘결사대전우회(회장 전인식)는 6월4일 백골병단 전적비 앞에서 전몰장병 합동 추모식을 거행했다.

용문산대첩 전승 기념행사



육군종합학교전우회(회장 김정규)는 5월24일에 전적비 앞에서 제68주년 용문산대첩 전승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국립현충원 참배



재향여군연합회(회장 이재순)는 5월22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행사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고 차성도 중위 추모행사



육군3사관학교총동문회(회장 정인하)는 6월3일 27사단에서 고 차성도 중위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현충일 추모행사



정보동우회(회장 박상수)는 6월6일 성남시 특수임무수행자 충혼탑에서 현충일 추모행사를 실시했다.

DMZ 동서횡단 자전거 순례



포병전우회(회장 이국범)는 6월5~9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임진각까지 DMZ, 자전거 순례행사를 가졌다.

도솔산지구 전몰장병 추모식



해병대전우회(총재 이호연)는 6월15일 양구 위령비 앞에서 도솔산지구전투 참전 전몰장병 추모식을 거행했다.

평택2함대 서해수호관 견학



화학전우회(회장 홍용철)는 5월28일 평택2함대 서해수호관을 찾아 전몰장병을 추모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 ▲공군전우회 : 7월4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고 이근석 장군 추모행사.
- ▲6·25참전유공자회 : 7월7일 충주 동락초등학교에서 제19회 7·7 6·25 첫 전승기념 및 결의대회.

- ▲병참동우회 : 7월10일 국방컨벤션에서 정기총회 및 병과장설 71주년 기념행사.
- ▲갑종장교전우회 : 7월19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갑종장교출병 70주년 기념행사 계획보고.
- ▲포병전우회 : 7월11일 서울 숲에서 자연보호활동.
- ▲육군종합학교전우회 : 7월12일 철원군 월정리 공적비에서 고 김교수

- 대위 제66주기 추념행사.
 - ▲해병대전우회 : 7월13일 군산 은파전적비에서 군산 이리 장항지구 전승 추모제.
 - ▲영관장교연합회 : 7월10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
 - ▲고엽제전우회 : 7월18일 잠실체육관에서 제22회 고엽제의 날 행사.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향군장학기금

※ 기간 : 5월 24일 ~ 6월 24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기업 및 단체

• 재단법인 내고장사랑재단 67(3,446)

▶ 개인

-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전 회장 강기창 50(190)
-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공군부회장 강기오 50(225)
- 향우산업 대표이사 허재수 20(140)
- 일반회원 대구시설관리공단 신현우 1(36)
- 일반회원 JSA 경비대대 이한수 1(18)
- 일반회원 (주)대창농축 오승훈 1(36)
- 일반회원 다온중학교 교사 이미래 1(34)
- 일반회원 우리은행 신현정 2(30)

▶ 정기기부

- 일반회원 이정호 1(257)
- 권율부대 선거이 연대 강모아 1(47)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환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건강정보

손목저림 있는 ‘손목터널증후군’ 증상과 치료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부위의 뼈와 인대로 이루어지는 수근관(손목터널)에서 여러 원인으로 정중신경(팔의 말초신경 중 하나로 일부 손바닥의 감각과 손목, 손의 운동기능 담당)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압박성 신경병증이다.

증상

엄지와 요측 손가락이 밤마다 아프고 감각이 무뎠으며 저림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손목의 굴곡 혹은 신전 자세를 오래 유지하여도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엄지, 검지, 중지 전체와 환지 요측부의 저림 증상이며 시간이 지나면 엄지근육의 쇠약 및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원인

손목터널증후군의 원인은 대부분 불분명하다. 드물게 결절종, 혈관종 또는 중앙근 근위부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이상이 수근관의 압력을 증가시켜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신부전,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 동반 시 발병 가능성이 높으며 임신 3기 여성들의 45%에서 수근관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 출산 후 사라진다. 직업과의 관계는 진동 기구 작업공 이외에는 유의하게 연관성을 연결 짓기 어렵다.

치료방법

초기 치료로는 무엇보다도 손목 사용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밤에 잘 때에 손목 보조기를 착용 한다. 적어도 3개월 이상 상기 부목(보조기) 고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외 손목 스테로

이드 주사 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투약 부작용을 잘 고려해야한다. 이외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도 시행해 볼 수 있으나 효과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상태다. 상기 보존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수술적 치료는 관혈적(open) 방법과 관절경적(endoscopic) 방법이 모두 가능하며 둘 사이에 치료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예방법

신부전,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 동반시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 건강을 잘 관리하여야 할 것이고 손목의 과사용과 연관된 퇴행성 질환의 일종이므로 과도한 사용은 피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우여! 어디에 ...

• 2017년3월 26사단 123기보대대 3중대에서 전역한 전우성씨가 당시 대대장이었던 원성훈 중령을 찾습니다. 전우성씨는 말쑥 피워서 대대장님 앞에서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으며, 전역날 감사하다는 인사에 네가 2번째라고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전우성 010-3692-9697〉

• 김해공병학교 야공6기 하사관반 김동진 씨가 양구 2사단 공병대 근무하다 전역한 장

녕군 출신 김창울씨를 찾습니다 김동진씨는 조기해, 박무수, 이승호, 정평호, 홍사범씨 등 김해공병학교 하사관반 동기모임을 21년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진 010-9744-0392〉

• 1973년에서 1975년 서울시 영등포구 등촌동 국군수도 통합병원 2호차(부원장 신현필 대령) 운전병이었던 김인태씨가 수송부에 근무한 김진식의 여러 전우들을 찾습니다 당시 김진식씨는 박상빈 준장(병원장)1호차 운전병 이었고 1975년 이후에 의무사령

부로 전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밖에 김윤호, 김창락, 조창현, 맹순호, 신현남, 이광호, 우판철, 이상윤, 김해성, 김재현, 고락규, 차진병, 이영호, 김찬수, 정대식, 김기중 등을 찾고 있습니다.
〈김인태 010-4359-8900, 김윤호 010-5276-1507〉

• 1994년에서 95년 31사단 기동중대본부 중대장이었던 이동석씨가 함께 근무했던 행정병들을 찾습니다.
〈이동석 010-6260-0183〉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행정보

대구 치맥 페스티벌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아이템 치킨과 맥주를 테마로 한 ‘2019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7월17일부터 21일까지 가장 뜨거운 도시, 대구에서 펼쳐진다. 2015년도 단일행사 88만명, 2016~2017년 100만 명의 참여로 높은 홍보효과와 함께 축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치킨과 맥주 행사에 걸 맞는 각종 무대행사와 전시행사 운영 및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시식하는 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053-248-9998〉



봉화 은어축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 봉화은어축제가 7월27일부터 8월4일까지 내성천 일원에서 열린다. 낙동강과 한강수계 최상류에 위치한 봉화군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은어의 청정 이미지를 테마로 한 국내 최고의 여름문화축제”를 매년 내성천 일원에서 학생들의 여름 방학이자 직장인들의 휴가철에 맞추어 개최하고 있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은어 반두잡이와 맨손잡이, 야간 반두잡이, 은어 구이체험은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아이들에게는 대자연 속에서의 독특한 체험을 선사한다.
〈봉화군축제위원회 054-679-6311~5〉



태백 해바라기축제

전국 최대의 해바라기 꽃밭과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야생화와 함께하는 해바라기축제가 강원 태백시 황연동 (구와우마을)에서 펼쳐진다.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해바라기 꽃밭 탐방로를 비롯해 야생화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꾸며진다. “자연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화두를 갖고 해바라기의 바다와 태초의 숲길, 그리고 300여 종이 넘는 야생화를 20만평이 넘는 축제장에 준비하여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해바라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unflowerfestival.co.kr〉



홍천 찰옥수수축제 2019

홍천찰옥수수축제가 7월26일부터 28일까지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일대에서 열린다.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찰옥수수 축제는 특유의 쫄득하고 찰진 맛과 함께 홍천의 자랑인 홍천찰옥수수를 모래톱이 살아있는 맑은 강변을 즐기고자 매년 전국 각지에서 가족, 연인들이 찾아오는 여름을 대표하는 관광체험축제이다. 올해부터는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와 함께 개최되어 낮에는 찰옥수수를 밤에는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홍천문화재단033-439-5800〉



평화로 가는 길, 우리가 간다 ... 2019 대학생 휴전선 답사 국토대장정

휴전선따라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휴전선 155마일 횡단 ... 전적지 답사 병영체험도



젊은 안보역군들의 조국수호 의지를 다지는 2019 대학생 휴전선답사 국토대장정이 6월25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출정식을 갖고 그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래의 국가안보를 책임질 젊은 세대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올해 1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국토대장정은 첫날 정부주관으로 실시하는 '6·25 전쟁 69주년 기념식' 참석에 이어 출정식을 갖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와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해군 2함대 천안함 견학을 시작으로 6박 7일간 휴전선을 따라 최동단 통일전망대까지 휴전선 155마일을 횡단한 후 7월1일 8군단 휴양소에서 해단식을 갖고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원들은 지난 4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 75개 대학교에서 200여명이 지원하여 희망자 중 84명(남학생 44명, 여학생 40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번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이경민(22세,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4년)군은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앞으로 장교가 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국토대장정은 장차 나의 군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장교가 되면 부대원들에게 6.25전쟁의 아픔과 나라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배경지식을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6박7일의 일정을 마친 대학생들이 해단식을 마치고 김진호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친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자 외할아버지도 6.25전쟁에 참전해 중령으로 예편했다는 유소현(21세,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년)양은 "국토대장정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라며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한 나의 모습을 만들고 싶어 신청했다"며 대장정에 대한 강한 의지와 뜻을 밝혔다.

7월1일 해단식에서 김진호 회장은 "이번 답사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각자 인내심과 굳은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올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미 정상들이 만나고 비핵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북 핵이 없어질 때까지 북한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없다면 여러분이 일주일간 답사해 온 휴전선에서 왜 우리 병력들이 철책을 지키고 있겠냐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병력들이 불철주야 155마일



출정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는 배상기 사무총장

전선과 3면이 바다인 해안선을 지키고 있지만 해안선 전체를 경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작전 환경인만큼 민군이 참여하는 국가 총력전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최선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해 사기를 올리고 지원하는 마음을 갖고 무엇보다 굳건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행사가 열린 광화문 일대에서 일부 단체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트럼프 방한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했다"며 "한미동맹은 조금도 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게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라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5천만 국민 누구나! 재향군인회상조회

재향군인회상조회가 '국가대표급' 감동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상조상품	크루즈 여행상품	향군전용모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336 · 마음튼튼450 · 국민감동520 *월1만원대로 부담없이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노선 5박 7일(2인) · 서부지중해노선 8박 10일(1인) *풀패키지, 발코니객실, 전문인솔자 동행, 전노선 500만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야외시설 · 수목장지 · 실내봉안당(계획)

- 상조 상품가입으로 크루즈 여행서비스까지 회원특전으로 제공합니다.
- 장례서비스에서부터 장지제공까지 원스톱서비스로 모십니다.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고객감동을 실현합니다.
- 무료 병역이행상담, 회원복지물 운영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센터 1577-0720	여행상담 02-2218-7152	모역상담 02-2218-7140
-------------------	----------------------	----------------------